

俄羅斯國立艾爾米塔什博物館・
西北民族大學・上海古籍出版社 編
『俄藏龜茲藝術品』, 上海古籍出版社, 2018
(『러시아 소장 쿠차 예술품』)

민병훈(閔丙勳)

1. 러시아의 실크로드 탐험과 수집 컬렉션
2.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실크로드 유물의 공개
3. 실크로드의 지역별 예술품 소개 최초의 사례
4. 『俄藏龜茲藝術品』의 학문적 성과와 문제점
5. 향후의 연구와 출판에 거는 기대

前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

주요논저:

『초원과 오아시스 문화, 중앙아시아』(서울: 통천문화사, 2005); 『실크로드와 경주』(서울: 통천문화사, 2014); 『유라시아의 십이지 문화』(과천: 진인진, 2019); 「國立中央博物館藏 투르판出土文書 管見」, 『美術資料』56(1995); 「國立中央博物館藏 투르판出土墓磚 管窺」, 『美術資料』57(1996); 「中國新疆地域 石窟寺院 調査鎖記」, 『美術史學誌』2(1997); 「國立中央博物館藏 투르판出土 伏羲女媧圖攷」, 『美術資料』61(1998);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中央아시아 遺物(大谷 컬렉션)의 所藏經緯 및 研究現況」, 『中央아시아研究』5(2000); 「異宗教間的 齟齬와 共存-조로아스터敎와 佛敎를 중심으로-」, 『美術資料』78(2009); 「투르판 아스타나 출토 鎮墓獸攷-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진묘수 소개를 겸하여-」, 『考古學誌』17(2011); 「소그드 商人과 위구르 商人: 키질 석굴과 베제클리크 석굴 벽화의 관련도상을 중심으로」, 『東垣學術論文集』14(2013)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3층 맨 우측에는, 세계 유수의 실�크로드 미술 컬렉션을 상설전시하는 “중앙아시아실”이 자리 잡고 있다. 20세기 초 실�크로드를 학술조사한 러시아의 코즐로프(Pyotr Kozlov), 베레조프스키(Mikhail Berezovsky), 올덴부르크(Sergey Oldenburg) 등에 의해 수집된 고고 미술품들이다.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의 방대한 이들 유물은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류하여 공개 중이며, 이제까지 독일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한국, 일본 등에서 개최된 특별전시를 통해 그 일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실�크로드 탐험대의 성과물을 종합적으로 공개한 대형 기획전시 〈The Caves of One Thousand Buddhas—Russian Expeditions on the Silk Route on the Occasions of 190 Years of the Asiatic Museum〉이 2008년에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개최됨으로써, 러시아의 실�크로드 관련 유물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번에 간행된 『俄藏龜茲藝術品』(2018)은 중국의 上海古籍出版社가 에르미타주 박물관과 공동으로, 당관 소장 실�크로드 유물 가운데 쿠차 지역의 예술품만을 선정하여 출판한 도록이다.

이 도록의 편집과 논고 및 유물 해설은 에르미타주 박물관 동양부(Oriental Department)의 시니어 큐레이터 키라 사모슈(Dr. Kira Samosyuk)이 담당하였다. 키라 박사는 하라호토(Khara-Khoto)와 西域 미술 전문가로, 그 이름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중앙아시아 불교미술 연구의 석학이다.

본서에는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의 쿠차 지역 출토 유물을 망라하여, 중앙아시아 불교미술에 있어서의 쿠차 지역의 특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탐험대가 남긴 현장 사진과 스케치 등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수집 유물 이외의 귀중한 정보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다.

키라 사모슈 박사는 본서의 게재 논문 『The Art of the Kuche Buddhist Temples』에서, 러시아의 실�크로드 탐험의 개요를 소개하고, 주로 불교시대 쿠차의 역사 전개 과정과 쿠차에 전래된 불교의 양상 그리고 석굴의 벽화 묘사와 그 연대 문제를 논한 후, 벽화의 주제와 塑像, 석굴사원이 예배의 장소로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키라 박사는 결론으로서, 쿠차 문화는 불교 전파의 역사 가운데 독립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유목세계의 여러 민족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간다라 미술, 헬레니즘, 고대 이란, 중국 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독자적인 성격을 구축하였음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쿠차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는 타림분지뿐만 아니라 敦煌과 中原 지역의 석굴 예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으로 문장을 마감하고 있다.

키라 박사의 논고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쿠차 지역 석굴의 造成 年代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이제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벽화의 조성 연대에 관한 견해를 소개하며, 벽화의 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甲冑의 圖像 특징 등을 소그드 미술 등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관련 자료와 비교하여, 키질의 조성 연대를 기존의 학설보다 백여 년 이상 소급해야 함을 주장하며, 5세기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쿠차 지역 석굴의 조성 시기의 문제는 석굴의 형식 문제를 비롯하여 佛畫의 主題와 樣式, 顏料의 문제, 服飾이나 頭髮, 裝飾 요소 등을 學際的 연구 방법으로 재조명하고, 그 과정에 나타나는 주변 문화권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위에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등 과학적 방법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에는 제2차세계대전 때 베를린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벽화편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일반인에게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들 벽화편이 최근에 보존처리를 마치고 일반에게 상설전시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본서 출판의 경위를 서술한 序言에는 이번 간행이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쿠차 예술품의 제1차 출판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아마도 보존처리가 끝난 독일 컬렉션을 소개하는 도록의 편집도 예정되어 있는 듯하다. 아울러 투르판과 호탄 지역 문물을 소개하는 도록의 간행도 기대해본다.

현재 쿠차의 석굴사원에서 절취한 벽화편은 러시아와 독일, 한국 등 여러 국가에 분장되어 있다. 이번 도록 출판을 계기로 쿠차 현지의 키질 석굴을 비롯한 제 석굴사원의 잔존벽화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벽화를 함께 소개하여 이들 석굴사원 벽화의 원래 모습을 온전하게 소개하는 종합도록의 간행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동서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고 쿠차 지역 특유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석굴사원의 벽화류 등을 소개하는 도록에는, 각 유물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설이 요망된다. 그리고 미술사 이외에도 보존과학적 측면에서의 안료 분석 등 학제적 조사연구 성과도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작금의 중국 서부 개발 정책에 따라, 신장 지역의 오아시스에 인구가 과밀 거주함으로써 유발되는 기후변화 등으로 석굴사원의 벽화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화계뿐만 아니라 문화재 保存修復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실크로드 석굴 벽화의 보존수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아울러 관련 인적자원 양성 등을 위해 보존과학센터를 운영하는 등 모두의 중지를 모아야할 때다.

본서는 20세기 초 서구 열강에 의해 추진된 실크로드의 고대 유적 조사 결과 가운데, 러시아 조사대가 쿠차 지역의 석굴사원을 중심으로 거둔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출판물이지만, 향후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의 독일 컬렉션 벽화까지 전부 소개될 경우, 쿠차의 불교미술과 실크로드 연구에 크게 공헌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서는 이제까지 축적되어 온 쿠차 지역에 대한 고고미술 연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실크로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서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실크로드 미술 연구의 성과물이자 새로운 편집 체계로서 학적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크로드 미술 연구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키라 사모슈 박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주제어: 키라 사모슈, 에르미타주 박물관, 러시아 탐험대, 쿠차, 석굴 벽화, 실크로드 미술

俄羅斯國立艾爾米塔什博物館 ·
西北民族大學 · 上海古籍出版社 編
『俄藏龜茲藝術品』, 上海古籍出版社, 2018
(『러시아 소장 쿠차 예술품』)

민병훈(閔丙勳)
前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

1. 러시아의 실크로드 탐험과 수집 컬렉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3층 맨 우측에는, 세계 유수의 실크로드 미술 컬렉션을 상설전시하는 “중앙아시아실”이 자리 잡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서구 열강에 의해 전개된 실크로드 탐험 성과물의 일부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대 실크로드의 간선 지대에 해당하는 중국 新疆 지역은 清代 康熙 · 乾隆 帝 시대의 적극적인 진출에 의해 중국의 직할 영토로 화하였으나, 이후 내외적 요인에 의해 清朝가 기울게 되며 이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영국을 필두로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이 이 지역을 선점하고자 앞 다투어 탐험대를 파견하여, 각 지역에서 지도를 작성하는 등 정보 수집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 신장 지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영국의 북진 정책이 충돌하는 장으로 화하였으며, 양국은 西域北道の 가장 서측에 위치한 카슈가르에 영사관을 설치하여 암묵의 대립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프르제발스키(Nikolay Przhevalskiy, 1839~1888)나 코즐로프(Pyotr Kozlov, 1863~1935), 영국의 영허즈번드(Francis Younghusband, 1863~1942) 등 주로 군인 신분의 지리학자 등이 탐험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입수하게 된 고문서의 가치가 알려지게 되며 이 지역이 고고미술의 보고라는 점에 착목하여, 탐험대가 박물관의 큐레이

터를 중심으로 편성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코즐로프는 흉노시대의 고분 노인올라(Noin-Ula)의 발굴과 더불어 西夏(1038~1227) 시대의 都城 유적 하라호토(Khara-Khoto)를 발굴하여 수많은 佛畫와 西夏文 典籍을 러시아로 반출하였으며, 이어서 베레조프스키(Mikhail Mikhailovich Berezovsky, 1848~1912)와 올덴부르크(Sergey Fyodorovich Oldenburg, 1863~1934)에 의해 주도된 러시아의 실크로드 탐험 과정에서, 둔황과 투르판, 쿠차 등 과거 불교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었던 서역북도 상의 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다수의 유물을 수집하였다. 한편 카슈가르 영사관의 영사로 재직하였던 페트로프스키(Nikolai Fyodorovich Petrovsky, 1837~1908)는 이미 死語로 화한 고대 문서와 테라코타 제품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러시아의 탐험 성과물 가운데 석굴사원의 벽화를 비롯한 불화 및 출토 유물은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그리고 문서류의 경우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좌측에 위치한 과학 아카데미 동방문헌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2.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실크로드 유물의 공개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의 방대한 이들 유물은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류하여 공개중이며, 해외에서 개최된 특별전시를 통해 특정 컬렉션을 집중 소개하기도 하였다. 1993년에 독일에서 개최된 〈Die Schwarze Stadt an der Seidenstrasse—Buddhistische Kunst aus Khara Khoto(10.-13.Jr), Museum für Indische Kunst〉(Lost Empire of the Silk Road: Buddhist Art from Khara Khoto X—XIII century)에서, 하라호토 출토 유물이 처음으로 서방세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으며, 이후 파리(Sérinde, Terre de Bouddha,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1995)와 도쿄(シルクロード大美術展, 東京國立博物館, 1996), 런던(The Silk Road—Trade, Travel, War and Faith, The British Library, 2004)에서 개최된 서구 열강의 탐험 성과를 집대성하는 대형 기획전시에 러시아 컬렉션의 일부가 출품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일본 교토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된 〈シルクロードの文字を辿って〉(실크로드의 문자를 찾아)라는 기획전시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동방문헌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고대 실크로드의 문서류가 대거 공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실크로드 탐험대의 성과물을 일거에 공개한 대형 기획전시가 2008년에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개최됨으로써, 당관 소장의 실크로드 관련 유물이 총체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ПЕЩЕРЫ ТЫСЯЧИ БУДД, Санкт-Петербург〉(The Caves of One Thousand Buddhas - Russian Expeditions on the Silk Route on the Occasions of 190 Years of the Asiatic Museum, 이하, 〈千佛〉로 약칭)이라고 명명된 이 특별전시는 당시 전 세계의 실크로드학 학자나 실크로드 문물 애호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전시는 호탄과 쿠차, 카라샤르, 투르판, 둔황, 하라호토, 부록(문서, 그린베델 컬렉션) 등 출토 유물을 지역별로 구성하여 소개하였

다. 특히 이 가운데 이제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독일 탐험대가 수집한 석굴 벽화 컬렉션의 일부가 공개되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발행된 도록은 러시아어판으로만 소개되어, 일반인들이 전시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분관에서 상기 전시의 축소판에 해당하는 『Expedition Silk Road, Journey to the West』가 2014년도에 개최된 바 있다.

3. 실크로드의 지역별 예술품 소개 최초의 사례

상술한 바와 같이 2008년에 개최된 〈千佛〉 전시를 전후하여,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둔황(『俄藏敦煌藝術品』 6冊, 1997~2005), 하라호토(『俄藏黑水城藝術品』 2008), 카라샤르의 시크신 출토 유물(『俄藏錫克沁藝術品』 2011) 등을 巨冊의 호화도록으로 출간한 바 있는 중국의 上海古籍出版社가 에르미타주 박물관과 공동으로, 당관 소장 실크로드 유물 가운데 쿠차 지역의 예술품만을 선정하여, 2018년 가을에 출판한 것이 바로 『俄藏龜茲藝術品』 I · II (도 1)이다.

이 도록의 편집과 논고 및 유물 해설은 에르미타주 동양부의 시니어 큐레이터 키라 사모슈(Dr. Kira Samosyuk)이 담당하였다. 키라 박사는 2006년도에 하라호토 출토 유물을 정리한 전서 『К.Ф. САМОСЮК, БУДДИЙСКАЯ ЖИВОПИСЬ ИЗ ХАРА-ХОТО XII-XIV ВЕКО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06. (K.F. Samosyuk, Buddhist Painting from Khara-Khoto, XII - XIV Century Between China and Tibet, St. Petersburg, The State Hermitage Publishers, 2006)』을 간행하여, 그 이름이 국

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중앙아시아 불교미술 연구의 석학이다.

이번에 쿠차 지역의 유물만을 선정하여 도록으로 발간하게 된 배경에는 에르미타주 박물관 동양부 업무 분장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당관 소장 실크로드 유물 가운데, 쿠차와 하라호토 유물은 키라 박사가 담당하고, 호탄과 노인올라 출토 유물은 올리아 엘리히나(Yulia Elikhina)가 담당하고 있으며, 투르판의 베제클리크 석굴 벽화는 니콜라이 프첼린(Nikolay Pchelin)이 전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쿠차 지역의 유물에 대한 학술적 정리가 일단락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간행된 『俄藏龜茲藝術品』(러시아 소장 쿠차 예술품)에는 에르미타주 소장의 쿠차 지역 출토 유물을 망라하여, 중앙아시아 불교미술에 있어서의 쿠차 지역의 특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도 1. 『俄藏龜茲藝術品』(2018)

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탐험대가 남긴 현장 사진과 스케치 등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수집 유물 이외의 귀중한 정보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쿠차는 서역북도 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실크로드의 교역과 문화의 중심 오아시스로서 중국의 남북조시대와 수당대에 걸쳐 크게 번영하였다. 쿠차는 중국 측 正史(『漢書』, 『北史』) 西域傳의 기록에 의하면, 天山 산중에서 철과 석탄이 생산되는 경제적 중심지였으며, 西域南道の 중심도시 호탄과 호탄강을 통해 이어져 있어, 쿠산왕조시대에 고대 이란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유입될 수 있었다. 그리고 북측으로는 천산 이북의 유목세력과의 직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여서, 唐代에는 安西都護府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쿠차에서 불교가 크게 흥성하고 대형 종교 유적이 집중 분포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628년경에 이곳에 들른 唐僧 玄奘은 “伽藍은 백여 곳 僧徒는 오천 여 명으로, 說一切有部를 학습하고 있다.”(『大唐西域記』 屈支國條)고 기술하고 있다. 쿠차에는 불교사원지 둘두르 아쿠르와 스바시를 비롯하여, 키질, 쿠티라, 심심, 키질가하 등 많은 석굴사원이 산재한다. 그리고 이들 석굴의 구조나 벽화의 내용은 서역 불교미술의 정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키질 석굴은 그 백미에 해당한다. 키질 석굴은 인도의 아잔타 석굴,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 석굴, 敦煌의 莫高窟과 더불어 실크로드 길지의 불교 유적으로 손꼽힌다.

20세기 초 서구 열강에 의한 쿠차 지역의 학술 조사는 주로 독일에 의해 집중 추진되었으며, 정세하기 이를 데 없는 보고서와 도록의 간행으로 전문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일반인들이 그 실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간행된 도록 『俄藏龜茲藝術品』에는 석굴사원의 벽화(59점)를 비롯하여, 목판화(8점), 佛教彫塑(53점), 武人彫塑(29점), 木彫(46점), 陶器殘片(1점), 石刻(1점), 소조 제작용 范(11점), 장식물 殘塊(23점), 首飾(1점), 인장(15점), 錢幣(15점), 탐험대가 남긴 스케치 및 臨模圖(100점), 흑백사진(27점)이 분야별로 B4 사이즈의 거책에 컬러 도판으로 게재되어 있다.

본서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1책(pp.1-198)에는 清代에 간행된 『新疆圖志』의 「庫車州總圖·庫車州圖」와 「목록」 「序言」, 키라 사모숙의 논고 「公元4-9世紀龜茲綠洲佛教石窟寺的壁畫和彫塑」와 논고의 러시아어와 영어판, 「서언」의 영어판 그리고 「예술품 도판」 가운데 壁畫·木版畫·雕塑가 게재되어 있다. 제2책(pp.199-410)에는 「예술품 도판」의 釋迦武士雕塑·木雕·陶器殘片·石刻·模具·裝飾物殘塊·首飾·印章·錢幣 그리고 베레조프스키에 의한 「탐험자료」 影描圖·2505 臨摹圖·庫車 1906 水彩畫冊, 「考察隊照片」, 「參考書目」이 실려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에서 발굴된 관련 유물은 한국을 포함하여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인도, 일본 등의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탐험 당사자들이 간행한 보고서류 이외에, 그 후의 조사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표한 곳은 한국과 독일, 러시아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俄藏龜茲藝術品』은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실크로드 미술 연구의 성과물이자 새로운 편집 체계로서 학적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크로드 미술 연구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키라 사모숙 박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4. 『俄藏龜茲藝術品』의 학문적 성과와 문제점

이하, 본서에 게재되어 있는 키라 사모숙(Кира Самосюк, 薩瑪秀克)의 논고 「公元4~9世紀龜茲綠洲佛教石窟寺的壁畫和彫塑—M. M. 別列佐夫斯基和C. Ф. 奧登堡搜集品的發表公佈」(「기원 4~9세기 쿠차 오아시스 석굴사원의 벽화와 조소—베레조프스키와 올덴부르크 수집품에 대한 발표와 공포」)를 중심으로, 그의 쿠차 지역 불교미술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고 약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해두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에 공표된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쿠차의 불교미술에 나타난 동서문화 교섭사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키라 박사는 본고에서 러시아의 실크로드 탐험의 개요를 소개하고, 주로 불교시대의 쿠차의 역사 전개 과정과 쿠차에 전래된 불교의 양상 그리고 석굴의 벽화 묘사와 그 연대 문제를 논한 후, 벽화의 주제와 塑像, 석굴사원이 예배의 장소로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키라 박사는 결론으로서, 쿠차 문화는 불교 전파의 역사 가운데 독립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유목세계의 여러 민족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간다라 미술, 헬레니즘, 이란, 중국 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독자적인 성격을 구축하였음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쿠차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는 타림분지뿐만 아니라 둔황과 중원지역의 석굴 예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으로 문장을 마감하고 있다.

키라 박사의 논고 가운데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 것은 학계의 가장 첨예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쿠차 지역 석굴의 조성 연대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독일의 그륀베델(Albert Grünwedel, 1856~1935)과 발트슈미트(Ernst Waldschmidt, 1897~1985)가 벽화의 양식 특징, 주제, 표현형식, 석굴의 형태, 벽화 명문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제시한 의견(Die Buddhistische Spätantike in Mittelasien, 7th Volume, 1933, 『中央아시아 古代佛教의 後期』 제7권, 1933) 그리고 중국 北京大學의 宿白 교수가 석굴 건축의 유형과 장식 특징, 벽화의 풍격과 색조의 대비 등을 중심으로 제시한 견해(『中國石窟 克孜爾石窟(一)』, 文物出版社, 1985)로 나뉜다.

前者는 가장 이른 시기를 500년경으로 보고 있으며 後者는 310±80년~350±6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측 연대의 오차 수치는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법에 있어서의 오차를 표시한 것이다. 즉 중국 측은 이 지역 석굴의 최성기를 4세기에서 5세기로 보고 있다. 독일 측 견해에 비해 키질 석굴의 조성 연대를 적어도 100년 이상 소급하여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측 견해의 중요한 근거 자료는 석굴의 벽토에 섞여있었던 지푸라기를 표본으로 한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물론 바미얀 석굴이나 기타 석굴의 벽화 조영 연대를 추정함에 있어 근자의 학계가 이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벽화의 지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지푸라기의 샘플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채취된 것인지 이에 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공표되지 않으면 제시 논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탈레반에 의한 바미얀 석굴 파괴 후 독일과 일본 조사대에 의해 광범위하게 실시된 탄소동위원소 연대 측정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バーミヤン佛教壁畫の編年放射性炭素に

よる年代測定』, 明石書店, 2006. 참조).

키라 박사는 논고의 「洞窟的描述與年代」 부분에서, 이제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벽화의 조성 연대에 관한 제 견해를 소개하며, 벽화의 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갑주의 도상 특징 등을 소그드 미술 등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관련 자료와 비교하여, 키질의 조성 연대를 기존의 학설보다 백여 년 이상 소급해야 함을 주장하며, 5세기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키라 박사의 주장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제기된 제 학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석굴 조영에 관한 문헌 자료가 전무한 현 시점에서 어느 것이 정설이라고 판정을 내리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결국 쿠차 지역 석굴의 조영 시기의 문제는 석굴의 형식 문제를 비롯하여 불화의 주제와 양식, 안료의 문제, 복식이나 두발, 제 장식 요소 등을 학제적 연구 방법으로 재조명하고, 그 과정에 나타나는 주변 문화권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위에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등 과학적 방법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어서 본 도록에 소개된 벽화 도판과 소조 도판 가운데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몇몇 작품에 대하여 자료 소개 차원에서 언급해두고자 한다.

첫째로 제 I 권의 벽화 부분(도판 4)에 소개되어 있는 쿠티라 석굴의 〈佛說法場景〉 도상(도 2)은 쿠차의 키질 석굴이나 심심 석굴 등의 벽화에도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으로, 쿠차 지역 불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즉 석굴 主室의 측벽이나 中心柱 정면의 감실 좌우 공간에 金剛力士 등 護法神이 설법중인 석존을 수호하는 도상이다. 그런데 키질 석굴 제77굴의 執金剛神(독일 컬렉션)이나 베제클릭 석굴 제20굴의 持燈惡鬼(독일 컬렉션) 도상에는 머리에 새 날개 장식이 달린 寶冠을 착용한 모습이 보인다. 이 쿠티라 석굴의 금강역사상 보관에도 새 날개 장식이 어렵פות하게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관의 새 날개장식은 이란의 守護神 “파로(Pharro) 神”의 상징으로, 3~4세기경의 간다라 조각 〈四天王奉鉢圖〉(平山郁夫 실크로드 미술관 소장)나 쿠샨조 코인, 파르티아나 사산조 페르시아 코인의 국왕 도상에도 그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는 간다라 불상이나 서역의 벽화 등에 등장하는 호법신의 獅子頭皮 장식과 마찬가지로, 불교 동점의 초기 과정에 나타나는 헬레니즘이나 고대 이란 문화 즉 조로아스터교 등과의 접합에 의해, 불교가 받아들인 외래



도 2. 불설법 장면의 집금강신, 6세기, 쿠차 쿠티라 석굴,
The Hermitage Museum



도 3. 堅牢地神, 6~7세기, 쿠차 키질가하 석굴,
The Hermitage Museum



도 4. 연주문 벽화편, 6~7세기, 키질 석굴 제60굴,
The Hermitage Museum

적 요소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즉 헤라클레스의 사자피를 八部衆의 건달바가 머리에 걸치고 있는 모습이나 집금강신의 머리에 파로 신의 상징인 새 날개장식이 묘사되어 있는 것은, 佛法을 수호하는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벽화편은 베를린 아시아박물관(Museum für Asiatische Kunst) 소장의 집금강신 벽화편과 도상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冠飾이나 胸飾 그리고 안료와 부드러운 음영 표현 방법이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초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를 6세기로 유추한 키라 박사의 시대 비정은 적확하다.

둘째로 제 I 권의 벽화 부분 도판 26에 게재되어 있는 〈堅牢地神〉 도상(도 3)이다. 키라 박사가 키질가하 석굴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는 이 벽화편은, 키질가하 제14굴 회랑의 공양자상과 마찬가지로, 쿠차의 왕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地神이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地天像은 毘沙門天 신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그 신앙의 중심지 호탄의 여러 벽화에 등장하고 있으며, 둔황 막고굴 제98굴에 등장하는 호탄 국왕의 도상과 일맥상통하는 도상이다. 아프가니스탄 핫다 출토의 〈大地母神〉 조각이나 펠리오가 둔황에서 수집한 불화 등에도 묘사되어 있다. 이 地母神 도상은 唐代의 중국 四川 지방 석굴에도 많은 사례가 남아 있으며, 경주 感恩寺址 출토 사리외함의 多聞天像에도 묘사되어 있고, 일본에는 “兜跋毘沙門天”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彫像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키질가하의 地天女 도상은 호탄이나 둔황, 중국 중원의 조각 등에 나타나 있는 도상과 달리, 상반신만을 드러낸 모습이 아니라 몸 전체가 지상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蓮華座 위의 인물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상술한 키질가하의 공양자상과 마찬가지로, 지천녀가 떠받치고 있는 인물이 지역의 왕족일 경우, 이는 왕의 권위를 지천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정통성과 더불어 왕이 비사문천과 같은 절대적 힘을 지녔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천녀가 떠받치고 있는 비사문천상은 동서 문화교류의 산물이자 중앙아시아의 복합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 I 권의 벽화 부분 도 34에 게재되어 있는 〈聯珠紋中的雁〉 도상(도 4)이다. 이는 〈천불〉 전시 도록에도 게재된 도상으로, 조로아스터교의 도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연주문은 파르티아 시대

를 거쳐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에 크게 유행하여, 의복의 문양이나 王冠, 冠飾, 垂飾 등의 주요 모티프로 이용되고 있다. “흐바르나(Khvarenah)”라고 불렸던 진주 그 자체는 조로아스터교의 광명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징성을 지닌 진주가 帝王 敍任式 조각에 등장하는 王環의 연주문에 묘사됨으로써, 조로아스터교의 광명의 신 아후라 마즈다로부터의 王權神授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도상이 중앙아시아의 박트리아 지방에서 불교와 접목되어 佛法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변용되어 수용된 것이다.

이 도상은 바미얀 석굴에도 나타나며, 사마르칸트나 투르판 등 실크로드의 중요 거점을 중심으로 연주문이 각양각색의 용도로 사용되게 된 것은, 당시 실크로드를 통한 문물의 교류가 왕성하게 전개되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키질 석굴의 제60굴에서 가져온 이 연주문 도상은 바미얀의 경우와 달리 사산조 페르시아의 도상이 지역적 변용을 거치지 않은 채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특이하다. 그리고 둔황 막고굴 제158굴 열반불의 베개에 묘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주문 내부의 “카르십타”라고 불리는 새는 행복의 호부를 물고 死者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 불교의 도상에 있어서도 열반불에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연주문 벽화편은 독일 탐험대가 가져간 벽화편과 양식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 아마도 동일 석굴에서 절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키질 석굴 제43굴 後廊의 소조 열반불이 안치되어 있었던 臺床 하부에는 연주 문양이 2중으로 장식되어 있어 이 문양이 열반불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본 도록의 탐험대 사진 도판 14 〈키질 석굴 E굴 佛枕上的 연주문 장식〉(도 5) 역시 열반불의 침상에 그려져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둔황 막고굴 제158굴의 것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벽화 사진에는 연주문 내부에 카르십타 대신 멧돼지 도상이 묘사되어 있어, 부활의 의미를 지닌 이 조로아스터교 도상이 쿠차 지방의 불교미술에도 반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투르판의 아스타나 고분에서 피장자의 얼굴에 雙鳥文이나 멧돼지가 장식된 聯珠文 천을 덮은 것은 死者의 환생과 영생을 기원하는 조로아스터교의 내세관이 반영된 것이다. 투르판의 토욕에서도 연주문 내부에 묘사되어 있는 멧돼지 도상이 독일 탐험대에 의해 알려진 바 있다.

마지막으로 본 도록의 권Ⅱ에 게재되어 있는 〈模具〉 즉 소조 불상이나 인물을 제작하기 위한 范(틀, 도 6)은 쿠차를 비롯한 서역지방의 불상 제작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것이다. 즉 서역지방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寡雨地帶이기 때문에 佛寺 내부 장엄에 있어서도 소조불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조불이라 할지라도 丸彫가 아니라 前面만을 묘사하여 벽면에 부착 장엄하는 半彫의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두부와 몸체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 성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귀와 손, 발 및 옷 주름, 胸飾 등도 따로 제작하여 첨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조 제작용 틀은 이제까지 호탄이나 카라샤르, 쿠차 등지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이번에 러시아의 베레즈프스키 탐험대에 의해 수집된 쿠차 지역의 소조불 제작용 틀을 망라하여 소개함으로써, 중앙아시아 불교미술의 특징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도 5. 키질 석굴 佛枕上的 연주문 장식
(러시아 탐험대 촬영)



도 6. 塑像 제작용 틀, 쿠차 6세기, 석회석,
The Hermitage Museum

5. 향후의 연구와 출판에 거는 기대

에르미타주 박물관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제2차세계대전 때 베를린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벽화편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일반인에게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들 벽화편이 최근에 보존처리를 마치고 일반에게 상설전시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벽화를 담당하고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이 박물관에는 314점의 그린베델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500점은 모스크바의 푸시킨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필자가 2013년 6월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교외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수장고와 보존과학실을 방문했을 때, 이들 벽화의 180여 점은 이미 보존처리를 마친 상태였으며 지금도 계속 보존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작년 9월 이를 다시 방문했을 때, 놀랍게도 이들 벽화는 보존처리가 모두 끝난 상태로 수장고에 보관 되어 있었으며, 상설전시실에서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에르미타주 박물관 측에 의하면, 이들 독일 컬렉션은 이제까지 그 존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있었지만,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구 벽화 보존처리실이 새 수장고의 완성과 함께 이전(2013년)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보존처리에 착수한 듯하다. 새 건물의 벽화 보존처리실에서는 7~8명 정도의 전담자가 중앙아시아 펜지켄트 출토 소그드 벽화와 함께 독일 컬렉션 벽화의 보존처리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벽화 전시와 연구 그리고 도록 출판은 보존과학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본 도록 출판의 경위를 서술한 序言에는 이번 간행이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쿠차 예술품의 제1차 출판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아마도 보존처리가 끝난 독일 컬렉션을 소개하는 도록의 편집도 예

정되어 있는 듯하다. 아울러 투르판과 호탄 지역 문물을 소개하는 도록도 간행될 것으로 본다.

현재 쿠차 석굴사원에서 절취한 벽화편은 러시아와 독일, 한국 등 여러 국가에 분장되어 있다. 이번 도록 출판을 계기로 쿠차 현지의 키질 석굴을 비롯한 제 석굴사원의 잔존 벽화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벽화를 함께 소개하여 이들 석굴사원 벽화의 원래 모습을 온전하게 소개하는 종합도록의 간행도 기대해본다.

본서를 출판한 上海古籍出版社는 이제까지 러시아 소장 중앙아시아 예술품과 문서류 등을 방대한 시리즈물로서 간행해왔다.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簡體字가 아닌 繁體字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책 말미의 「참고서목」에 쿠차 지역에서 수습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 각 기관의 간행물이나 연구서, 도록 등이 체계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아울러 동서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고 쿠차 오아시스 특유의 지역성이 반영된 벽화류 등을 소개하는 도록에는, 각 유물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설이 요망된다. 그리고 미술사 이외에도 보존과학적 측면에서의 안료 분석 등 학제적 조사연구 성과도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출판사 측이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쿠차 예술품에 대한 제2차 간행을 기획중이라면, 컬러 도판 인쇄의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절실하다. 키라 박사를 비롯한 박물관 측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혁신적인 편집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간행된 도록의 인쇄 상태가 불량하여 그 성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작금의 중국 서부 개발 정책에 따라, 신장 지역의 오아시스에 인구가 과밀 거주함으로써 유발되는 기후변화 등으로 석굴사원의 벽화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화계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수복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실크로드 석굴 벽화의 보존수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아울러 관련 인적자원 양성 등을 위해 보존과학센터를 운영하는 등 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본서는 20세기 초 서구 열강에 의해 추진된 실크로드의 고대 유적 조사 결과 가운데, 러시아 조사대가 쿠차 지역의 석굴사원을 중심으로 거둔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출판물이지만, 향후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의 독일 컬렉션 벽화까지 전부 소개될 경우, 쿠차의 불교미술과 실크로드 연구에 크게 공헌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서는 이제까지 축적되어 온 쿠차 지역에 대한 고고미술 연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실크로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The State Hermitage Museum·Northwest University for
Nationalities·Shanghai Chinese Classics Publishing House

Kuche Art Relics Collected in Russia

Shanghai Chinese Classics Publishing House, 2018

Dr. Min Byung-Hoon*

Located on the right side of the third floor of the State Hermitage Museum in St. Petersburg, the “Art of Central Asia” exhibition boasts the world’s finest collection of artworks and artifacts from the Silk Road. Every item in the collection has been classified by region, and many of them were collected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rough archaeological surveys led by Russia’s Pyotr Kozlov, Mikhail Berezovsky, and Sergey Oldenburg.

Some of these artifacts have been presented around the world through special exhibitions held in Germany, France,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Korea, Japan, and elsewhere. The fruits of Russia’s Silk Road expeditions were also on full display in the 2008 exhibition *The Caves of One Thousand Buddhas – Russian Expeditions on the Silk Route on the Occasion of 190 Years of the Asiatic Museum*, held at the Hermitage Museum.

Published in 2018 by the Shanghai Chinese Classics Publishing House in collaboration with the Hermitage Museum, *Kuche Art Relics Collected in Russia* introduces the Hermitage’s collection of artifacts from the Kuche (or Kucha) region. While the book focuses exclusively on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Kuche area, it also includes valuable on-site photos and sketches from the Russian expeditions, thus helping to enhance readers’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Kuche art within the Buddhist art of Central Asia.

The book was compiled by Dr. Kira Samosyuk, senior curator of the Oriental Department of the Hermitage Museum, who also wrote the main article and the artifact descriptions. Dr. Samosyuk is an internationally renowned scholar of Central Asian Buddhist art, with a particular expertise in the art of Khara-Khoto and Xi-yu. In her article “The Art of the Kuche Buddhist Temples,” Dr.

* Former Director of the Asia Department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amosyuk provides an overview of Russia's Silk Road expeditions, before introduc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uche in the Buddhist era and the aspects of Buddhism transmitted to Kuche. She describes the murals and clay sculptures in the Buddhist grottoes, giving important details on their themes and issues with estimating their dates, and also explains how the temples operated as places of worship. In conclusion, Dr. Samosyuk argues that the Kuche region, while continuously engaging with various peoples in China and the nomadic world, developed its own independent Buddhist culture incorporating elements of Gandara, Hellenistic, Persian, and Chinese art and culture. Finally, she states that the culture of the Kuche region had a profound influence not only on the Tarim Basin, but also on the Buddhist grottoes of Dunhuang and the central region of China.

A considerable portion of Dr. Samosyuk's article addresses efforts to estimate the date of the grottoes in the Kuche region. After citing various scholars' views on the dates of the murals, she argues that the Kizil grottoes likely began prior to the fifth century, which is at least 100 years earlier than most current estimates. This conclusion is reached by comparing the iconography of the armor depicted in the murals with related materials excavated from the surrounding area (such as items of Sogdian art).

However, efforts to date the Buddhist grottoes of Kuche must take many factors into consideration, such as the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caves, the themes and styles of the Buddhist paintings, the types of pigments used, and the clothing, hairstyles, and ornamentation of the depicted figures. Moreover, such interdisciplinary data must be studied within the context of Kuche's relations with nearby cultures. Scientific methods such as radiocarbon dating could also be applied for supplementary materials.

The preface of *Kuche Art Relics Collected in Russia* reveals that the catalog is the first volume covering the Hermitage Museum's collection of Kuche art, and that the next volume in the series will cover a large collection of mural fragments that were taken from Berlin during World War II. For many years, the whereabouts of these mural fragments were unknown to both the public and academia, but after restoration, the fragments were recently re-introduced to the public as part of the museum's permanent exhibition. We look forward to the next publication that focuses on these mural fragments, and also to future catalogs introducing the artifacts of Turpan and Khotan.

Currently, fragments of the murals from the Kuche grottoes are scattered among various countries, including Russia, Germany, and Korea. With the publication of this catalog, it seems like an opportune time to publish a comprehensive catalog on the murals of the Kuche region, which represent a compelling mixture of East-West culture that reflects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 catalog that includes both the remaining murals of the Kizil grottoes and the fragment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could greatly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murals' original state. Such a book would hopefully include a more detailed and interdisciplinary discussion of the artifacts and murals, including scientific analyses of the pigments and other materia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ervation science.

With the ongoing rapid development in western China, the grotto murals are facing a serious crisi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overcrowding in the oasis city of Xinjiang. To overcome this challenge, the cultural communities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that possess advanced technology fo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must begin working together to protect and restore the murals of the Silk Road grottoes. Moreover, centers for conservation science should be established to foster human resources and collect information.

Compiling the data of Russian expeditions related to the grottoes of Kuche (among the results of Western archaeological surveys of the Silk Road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Kuche Art Relics Collected in Russia* represent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research on Kuche's Buddhist art and the Silk Road, which will only be enhanced by a future volume introducing the mural fragments from Germany. As the new authoritative source for academic research on the artworks and artifacts of the Kuche region, the book also lays the groundwork for new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on the Silk Road. Finally, the book is also quite significant for employing a new editing system that improves its academic clarity and convenience. In conclusion, Dr. Kira Samosyuk, who planned the publication, deserves tremendous praise for taking the research of Silk Road art to new heights.

Keywords: Kira Samosyuk, State Hermitage Museum, Russian expeditions, Kuche, Kucha grotto murals, Silk Road art